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헌배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경학부 교수
(hbjong@cau.ac.kr)

창업은 고용문제를 해결하면서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근원이다. 이에 정부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창업대학원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준비된 창업”을 점검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창업대학원 교육생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창업대학원 교육이 성과지향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창업대학원 설립”은 창업의 사회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면서 창업성공과 창업실패를 만들어내는 핵심적 변인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 보다 성공적인 창업대학원 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인적/물적 자원 확충과 보다 정밀한 사업 평가/지원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수익성 있는 창업대학원 특성화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창업대학원생의 “창업자”다운 진취적 가치관과 “창업성공 의지”가 필요하다.

주제어: 창업, 창업가정신, 창업학, 창업대학원, 창업교육프로그램

1. 서론

창업 없는 산업 활동의 확대재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창업은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고용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인간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근원이 된다. 이에 모든 국가 정부는 자국민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기술, 시설, 인력, 경영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성공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 신기술을 통해 시장성공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1%수준에 불과하다고 알려진다(조선일보, 2007. 7. 3)

창업자의 능력, 사업아이템, 보유기술 등이 시장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창업활동은 그만큼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창업실패에 따른 기회비용

은 고스란히 창업자와 무관한 일반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손실로 전가된다. 창업을 무작정 장려 할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창업,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준비된 창업”을 점검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히 해진다.

창업환경요인이 통제가능하지 않는 한 “창업성공의 불문율”을 찾기는 어려우나 통제 가능한 요인은 분명히 존재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창업자가 이미 확인된 창업실패경험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거나 확인된 성공요인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창업성공이나 실패사례를 “창업학”이라는 전문적인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면 창업 성공율은 분명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지향적인 창업교육프로그램은 효율적인 창업성공 지원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재확정일자: 2008. 01. 23.

* 본 논문은 중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대학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학에 적절한 여건이 주어진다면 창업교육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대학은 가장 중요한 창업교육기관으로 활약하고 있음이 범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청은 국책 창업대학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 9월 중앙대학교를 필두로 하여 전국 5개 권역에 5개 창업대학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학의 학문적 정체성(identity)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 하에서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창업대학원은 출범 초기부터 창업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실무중심, 현장중심형 교육을 통하여 창업성공이라는 성과를 추구한다."라는 중소기업청의 사업목표는 분명하였으나 정작 창업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대학 입안자의 학문적 배경이나 주관적인 틀 속에서 설정되고 운용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문연구와 이론 교육의 현장인 대학에서 창업성공이라는 성과지향적 교육의 결과물을 그것도 단기간에 보여주어야 하는 현실은 기존의 창업대학원 교육 조직과 인력으로는 적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거의 모든 창업대학원이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비롯한 강사 및 교육재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소기업청의 국비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는 국내 5개 창업대학원의 설립 후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창업대학원 교육이 성과지향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국내외 창업교육 현황

2.1 창업교육 현황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중소기업 경영 교육차원에서 창업에 관한 교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학위과정이 아닌 단기 연수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주관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 프랜차이즈 창업교육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창업교육 서비스의 공급체제는 취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설립된 창업대학원외에는 공인된 창업교육 전문가 배출기관이 없었으며 그나마 몇 안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에 소재한 창업자의 활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창업교육과정은 1945년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 후반 베스퍼(Vesper, 1987) 등과 같은 진취적 학자들이 기존 경영교육과 창업교육의 상이함을 지적함으로써 창업교육의 차별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뱁슨(Babson), 베일러(Balyor), 하버드(Harvard), 와튼(Wharton)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이를 대학교육에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창업교육의 특성화 발전을 선도하게 되었다.

2.2 창업대학원 운영실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정부 이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물경 10년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심각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난을 겪고 있다. 창업

활성화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고용 창출의 잠재력 확산 수단으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체계적인 창업가 및 창업교육전문가 양성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현실은 창업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고용창출의 방안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높인다는 전략 하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5개 창업대학원을 2004년 공개 모집하였다.

2004년 9월 중앙대학교가 창업대학원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2005년 3월에는 나머지 4개 창업대학원이 모두 출범하였으며 이후 국내 창업대학원은 개설 2년 만에 창업교육 및 국내창업을 위한 기반학문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개 창업대학원은 그 간 대학과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창업 강좌가 전문요원 부족, 전달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여, 선진국에 준하는 창업 전문 교육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업대학원의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업대학원 표준교육 시스템 구축 필

요성과 창업대학원의 자립성 확보 등의 문제점들이 내외부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아 향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인 창업대학원의 안정적 사업 진행 및 사후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갈구하게 되었다.

전국 5개 창업대학원은 2개 국립대학(진주산업대, 한밭대)과 3개 사립대학(예원예술대, 중앙대, 호서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소기업청 국고지원금과 대학의 대응자금 그리고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5개 창업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전국 창업대학원협의회는 상설로 운영(초대회장 중앙대 정현배 교수, 현회장 호서대 김홍 교수)되고 있으며 창업대학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창업교육을 위한 대학원간의 교육/정보교류를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국 5개 창업대학원의 교수진은 총 30명, 재학생 수 총 274명, 2007년도 졸업예정자 109명,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개설 과목 수는 78개로 조사되었다.

5개 창업대학원은 기업가 정신, 사업아이디어개발, 사업계획서, 단계별 자금조달, 경영자의 역할 등 창업기본 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실제 창업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교육으로

〈표 1〉 전국 5개 창업대학원 일반현황

구 분	권역	소재지	교수진	재학생수	2007년도 졸업예정자	개설과목 수 (2005~2006)
예원예술대	전라	전주	3	58	29	14
중앙대	경기	안성	10	44	8	13
진주산업대	경상	진주	2	59	29	13
한밭대	충청	대전	6	51	23	26
호서대	서울	서울	9	62	20	24
계	-	-	30	274	109	78

〈표 2〉 창업대학원 영역별 과목분포 현황

구분	총 과목수	I. 창업전		II. 창업시		III. 창업후		사례연구 및 실습지도
		과목수	%	과목수	%	과목수	%	
호서대	24	3	12.5	14	58.3	6	25	인턴십, 멘토링, 해외연수, 창업경진대회 등
중앙대	13	2	15.4	5	38.5	6	46.1	
한밭대	26	2	7.6	17	65.3	6	23.1	
진주산업대	13	2	15.4	7	53.8	4	30.8	
예원예술대	14	3	21.4	7	50	4	28.6	
계	90	12	13.3	50	55.6	26	28.9	

구성하기 위하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창업 및 창업컨설팅 전문가의 외부강사 비율을 50%-70%로 유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5개 창업대학원에서 개설 운영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미국 뱁슨대학(Babson College)에서 설계·구현한 창업전 과정(창업이론 습득과정), 창업시 과정(창업준비과정), 창업후 과정(창업후의 경영과정)의 3단계 영역으로 그 분포도를 살펴보면, '창업 초기과정'이 13.3%, '창업중 과정'이 55.6%, '창업후 과정'이 28.9%로 창업실무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창업중 과정'이 높게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표 2〉참조).

III. 창업대학원생 만족도 조사

3.1 조사 방법 및 표본의 특성

전국 5개 창업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질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였다. 모집단은 전국 5개 창업대학원 재학생 274명이며 전수 조사를 시도하였다. 설문지는 5개 창업대학원 행정실과 원우회를 통하여 배부하여 조사 의뢰하였으며 모집단의 58.7인 16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중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33부를 제외하고 졸업생 응답자 6부를 포함하여 총 134부(모집단의 48.9%)를 전산 입력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은 SPSS(Ver. 13.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 그리고 우선 순위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주로 일원배치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여 각 대학원별의 각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F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집단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빈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73.9 대 25.4로 남자가 많으며 결혼 여부에서도 기혼이 76.1%이다. 연령과 소득 계층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현재까지 1학기 신입생과 이 3학기 재학생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직업 분포는 사무 관리직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자영업 그리고 컨설턴트 직업 순으로 각각 차지하고 있다. 창업대학원 전공별로 보면 창업 컨설팅 전공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창업대학원 졸업 후 진로는 창업을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현재 사업(직장)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응답이다. 창업은 2009년에 가장 많이 계획(31%)하고 있으며 2007년 창업도 22.9%에 이르고 있다.

〈표 3〉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남녀 구분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남	99	73.9	기혼	102	76.1
여	34	25.4	미혼	30	22.4
미 응답자	1	0.7	미 응답자	2	1.5
전체	134	100.0	전체	134	100.0

〈표 4〉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연령, 소득, 재학차수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30세 미만	18	13.4	100만원 이하	7	5.2	1학기	71	53.0
만 30-35세	20	14.9	100-200만원	21	15.7	2학기	6	4.5
만 36-40세	29	21.6	200-300만원	30	22.4	3학기	33	24.6
만 41-45세	28	20.9	300-400만원	25	18.7	4학기	6	4.5
만 46-50세	28	20.9	400-500만원	25	18.7	5학기	5	3.7
만 51세 이상	10	7.5	600만원 이상	15	11.2	졸업생	6	4.5
무 응답자	1	0.7	무 응답자	11	8.2	무 응답자	7	5.2
합계	134	100.0	합계	134	100.0	합계	134	100.0

〈표 5〉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직업, 전공, 취학목적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자영업	34	25.4	창업경영	46	34.3	창업	57	42.5
컨설턴트	21	15.7	창업컨설팅	56	41.8	현재 사업(직장) 진행	47	35.1
사무 관리직	43	32.1	창업전문가	9	6.7	새로운 직장 탐색	17	12.7
판매 서비스직	8	6.0	기타	14	10.4	기타	3	2.2
기타	22	16.4	무응답자	9	6.7	무응답자	10	7.5
무응답자	6	4.5						
합계	134	100.0	합계	134	100.0	합계	134	100.0

3.2 조사 분석 결과

3.2.1 교육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도

전국 창업대학원 학생들이 창업대학원의 교육 목표 및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해본 결과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업대학원 설립 이념 목표에 대한 이해도에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최대값 5를 기준으로 평균 4.0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대학원 설립 취지나 교육 목표가 적절한가? 의 질문과 향후 창업대학원

〈표 6〉 창업대학원 졸업 후 진로

창업 계획 시기			박사과정 학업계획		
년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2002	1	2.9	창업학 박사과정 진학	64	47.8
2006	1	2.9	다른 박사과정 진학	20	14.9
2007	8	22.9	박사과정 진학 계획 없음	25	18.7
2008	7	20.0	기타	11	8.2
2009	11	31.4	무 응답자	14	10.4
2010	4	11.4			
2011	1	2.9			
2012	1	2.9			
2015	1	2.9			
합계	35	100.0	합계	134	89.6

〈표 7〉 창업대학원 교육 목표와 비전에 대한 이해도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설립 이념 목표에 대한 이해도	134	2.00	5.00	4.0000	0.9177	2.616	0.027*
설립 취지나 교육 목표가 적절	134	1.00	5.00	4.0000	0.8226	1.910	0.097
창업대학원의 발전 가능성	134	1.00	5.00	3.9776	0.9133	3.162	0.010*
입학 전에 가졌던 기대와 현재 상황 비교	129	1.00	5.00	3.1938	1.1530	7.746	0.000**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 < 0.05$ 이내, **는 $P < 0.01$ 이내 임.

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평균 약 4.0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학생들이 창업대학원 입학 전에 가졌던 기대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평균 3.2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 당국은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F검정을 해본 결과

창업대학원 설립 취지나 교육 목표가 적절한가의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은 학교별 평균 점수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창업대학원 진학 목적의 우선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1순위는 창업 정보 및 인프라 활용이고 2위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다. 그러나 〈표 9〉는 창업대학원 재학 중 얻은 주요 효과에 대한 우선 순위로 1순위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고 2위로 창업 정보 및 인프라 활용이다. 입학 후 1순

〈표 8〉 창업대학원 진학 목적의 우선 순위

구분	응답수	가중치	비중	순위
창업 준비	117	28.90	23.3	3
학위취득	113	22.70	18.3	4
인적 네트워크 구축	118	31.80	25.6	2
창업 정보 및 인프라 활용	125	39.20	31.6	1
기타	8	1.50	1.2	5
합계		124.1	100.0	

〈표 9〉 창업대학원 재학 중 얻은 주요 효과의 우선 순위

구분	응답수	가중치	비중	순위
창업 준비	117	22.1	18.0	3
학위취득	117	20.4	16.9	4
인적 네트워크 구축	121	41.2	33.5	1
창업 정보 및 인프라 활용	117	37.6	30.6	2
기타	9	1.7	1.4	5
합계		123.0	100.0	

위가 인적 네트 워크 구축 항목으로 향후 대학원은 학생들 간에 인적 네트 워크 구축이 잘 되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2.2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전국 창업대학원 학생들의 창업대학원의 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측정해본 결과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론교육 참여 수준은 평균 약 4.0으로 높으나 나머지 항목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각 대학원은 이론교육 프로그램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론교육의 구성에 대한 적절성 평균 점수

〈표 10〉 이론교육 프로그램(커리큘럼)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인지 정도	130	1.00	5.00	3.4615	0.8274	1.464	0.206
참여 정도	130	1.00	5.00	3.9923	0.7726	1.611	1.162
만족 수준	130	1.00	5.00	3.3308	0.9596	4.964	0.000**
구성의 적절성	130	1.00	5.00	3.2154	0.9803	6.215	0.000**
사업에 도움 정도	128	1.00	5.00	3.4453	0.9205	5.800	0.000**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0.05 이내, **는 P<0.01 이내 임.

가 3.2로 아주 낮아 각 대학원의 이론교육과목 구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검정으로 F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이론교육의 인지 정도와 참여 정도에서 각 대학원별 차이가 없으며 이들 이외 항목에 대해서는 각 대학원별 평균 점수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차이가 나는 항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코칭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코칭교육의 인지 정도 점수는 평균 약 3.4로 약간 높으며 나머지 항목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각 대학원은 코칭교육 프로그램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코칭교육의 구성에 대한 적절성 평균 점수가 약 2.9로 아주 낮아 각 대학원의 코칭교육 구성에 대

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검정으로 F검정을 한 결과 코칭교육의 사업에 도움 정도 항목은 각 대학원별 차이가 없으며 이들 이외 항목에 대해서는 각 대학원별 평균 점수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차이가 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역시 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턴십 교육의 인지 정도 점수는 평균 약 3.3로 약간 높으며 나머지 항목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각 대학원은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F검정 결과 인턴십 교육의 인지 정도 항목을 제외하고는 각 대학원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연수

〈표 11〉 코칭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인지 정도	84	1.00	5.00	3.4405	0.9613	4.587	0.001**
참여 정도	79	1.00	5.00	3.3418	1.0728	3.500	0.007**
만족 수준	79	1.00	5.00	3.0127	1.0315	2.565	0.034**
구성의 적절성	79	1.00	5.00	2.8734	1.0299	3.219	0.011**
사업에 도움 정도	79	1.00	5.00	3.1013	1.0573	2.199	0.064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0.05 이내, **는 P<0.01 이내 임.

〈표 12〉 인턴십 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인지 정도	66	1.00	5.00	3.3030	0.9441	4.497	0.002*
참여 정도	65	1.00	5.00	3.0923	1.1142	1.040	0.403
만족 수준	64	1.00	4.00	2.8438	0.8769	1.579	0.180
구성의 적절성	64	1.00	5.00	2.8125	0.9407	1.945	0.101
사업에 도움 정도	64	1.00	5.00	2.8281	1.0919	2.046	0.086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0.05 이내, **는 P<0.01 이내 임.

교육의 인지 정도 점수는 평균 약 3.4로 약간 높으며 나머지 항목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각 대학원은 국내 연수 교육 프로그램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F검정 결과 국내 연수 교육의 인지 정도와 참여정도 그리고 만족 수준의 항목은 각 대학원별 차이가 있어 이들 항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표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외 연수 교육의 인지 정도와 참여 정도 점수는 평균 약 4.0으로 아주 높으며 나머지 항목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각 대학원은 해외 연수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구성의 적절성, 그리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차이에 대한 통계적 F검정 결과 해외 연수 교육의

인지 정도와 참여정도 항목은 각 대학원별 차이가 없었다.

〈표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장실습 교육의 인지 정도와 참여점수는 평균 약 3.4로 약간 높으며 나머지 항목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구성의 적절성은 낮은 값으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F검정 결과 모든 항목은 각 대학원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대학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창업대학원의 재학생들이 소속 대학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표 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표 13〉 국내 연수 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인지 정도	71	1.00	5.00	3.4225	1.0235	3.357	0.009**
참여 정도	71	1.00	5.00	3.3944	1.0348	2.606	0.033**
만족 수준	70	1.00	5.00	3.1714	0.9776	2.929	0.019**
구성적 적절성	69	1.00	5.00	3.0435	0.9917	1.565	0.183
사업에 도움 정도	70	1.00	5.00	3.0714	1.0401	2.219	0.063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0.05 이내, **는 P<0.01 이내 임.

〈표 14〉 해외 연수 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인지 정도	74	2.00	5.00	3.9730	0.7397	0.234	0.946
참여 정도	74	2.00	5.00	3.9595	0.8014	1.358	0.251
만족 수준	73	1.00	5.00	3.5342	0.9141	5.484	0.000**
구성적 적절성	73	1.00	5.00	3.3562	1.0051	6.224	0.000**
사업에 도움 정도	73	1.00	5.00	3.4247	1.0398	4.694	0.001**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0.05 이내, **는 P<0.01 이내 임.

〈표 15〉 현장실습 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인지 정도	79	1.00	5.00	3.4051	0.8846	0.751	0.588
참여 정도	78	1.00	5.00	3.4231	0.9331	1.662	0.155
만족 수준	77	1.00	5.00	3.1558	0.9742	0.351	0.880
구성의 적절성	78	1.00	5.00	2.9872	0.9466	0.207	0.958
사업에 도움 정도	78	1.00	5.00	3.1026	1.0518	0.669	0.648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0.05 이내, **는 P<0.01 이내 임.

〈표 16〉 외부기관의 창업대학원 지원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중소기업청 지원 만족도	124	1.00	5.00	3.2419	0.9908	5.223	0.000**
대학본부 지원 만족도	123	1.00	5.00	2.9756	1.1414	7.291	0.000**
창업대학원협의회 지원 만족도	121	1.00	5.00	2.8926	1.0231	5.447	0.000**
창업 관련 유관기관 지원 만족도	120	1.00	5.00	2.7750	1.0408	5.839	0.000**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0.05 이내, **는 P<0.01 이내 임.

가 보통수준을 약간 넘는 평균 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 다른 기관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창업 관련 유관기관 지원 만족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향후 각 대학원이 창업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F검정 결과 모든 항목은 각 대학원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각 대학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17〉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창업대학원의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들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외국 대학원과 교류 활동이 아주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F검정을 한 결과 외국 대학원과 교류 정도 항목만 각 대학원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업대학원의 국제 교류 활동은 공동 행사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교수 교류와 학생 교류 등으로 나타났다.

〈표 17〉 창업대학원의 국제교류 실태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외국 대학원과 교류 정도	102	1.00	5.00	2.5392	0.99176	2.501	0.036*
외국 대학원과 교류 활용도	102	1.00	4.00	2.3922	0.88056	1.442	0.216
국제 교류가 사업에 도움 정도	100	1.00	5.00	2.6000	0.95346	1.030	0.405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0.05 이내, **는 P<0.01 이내 임.

〈표 18〉 창업대학원이 국제 교류하고 있는 항목

구분	응답수	비율(%)
학생 교류	16	22.9
교수 교류	21	30.0
공동 행사	26	37.2
박사과정 연계	4	5.7
기타 교류	3	4.3
합계	70	100.0

그러나 박사과정에 대한 연계활동은 극히 저조함으로 응답자들은 창업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빠른 시간 내에 설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19〉는 졸업 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 졸업생간 인적 네트워크가 적절성 항목이 가장 높으며 이외 모든 항목이 아주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대학원이 졸업생들의

졸업 후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F검정 결과 외국 대학원과 교류 정도 항목만 각 대학원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은 장학제도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의견으로 모든 항목이 5점 척도로 중간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제도의 이해와 활용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

〈표 19〉 졸업 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평생 교육시스템 정도	94	1.00	4.00	2.2979	0.8530	1.798	0.121
진로를 위한 정보 지원 적절성	94	1.00	5.00	2.3723	0.9156	1.320	0.263
창업자금 지원 적절성	94	1.00	4.00	2.3511	0.9005	1.486	0.202
졸업생간 인적 네트워크 적절성	94	1.00	5.00	3.0319	0.9667	3.334	0.008**
재학생과 졸업생간 인적 네트워크 적절성	94	1.00	5.00	2.9574	0.9380	2.401	0.043*
졸업생 창업유관기관과 네트워크 충실성	93	1.00	5.00	2.7312	0.9457	3.659	0.005**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0.05 이내, **는 P<0.01 이내 임.

〈표 20〉 장학제도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인지도	125	1.00	5.00	3.3600	2.8776	0.946	0.454
활용도	125	1.00	5.00	3.0160	1.0924	7.768	0.000**
만족도	125	1.00	5.00	2.9280	1.1229	5.208	0.000**
사업운영 및 계획에 도움	123	1.00	5.00	3.0407	1.0969	6.820	0.000**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0.05 이내, **는 P<0.01 이내 임.

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국책대학원으로서 명실상부한 지원을 해줄 것을 학생들이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F검정 결과 인지도 항목만 차이가 없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2.4 창업대학원의 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

〈표 21〉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창업 성공 요인을 그 중요도순으로 살펴보면 경영자 마인드를 가장 중요시하며 사업아이템과 자금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22〉는 창업대학원 성공 요인을 중요도 순으로 본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중

요하며 그 다음이 교수진과 학생수준 그리고 대학원 운영 실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원생들의 교육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대학원생간의 교류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대학원의 현재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각 창업대학원은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각 대학원은 이들 항목에 대한 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각 대학원별 각 질문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검정으로 F검정을 한 결과 모든 항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학원간 정보 교류로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표 21〉 창업 성공요인의 중요도 우선 순위

구분	응답자수	가중치	비중(%)	순위
경영자 마인드	126	39.00	31.6	1
아이템	128	39.30	30.9	2
자금	130	24.20	19.0	3
인력	127	17.00	13.3	4
조직	124	7.90	6.2	5
입지	121	1.60	1.3	6
합계		127.4	100.0	

〈표 22〉 창업대학원 성공요인의 중요도 우선 순위

구분	응답자수	가중치	비중	순위
교육 프로그램	129	48.6	37.8	1
교수진	128	31.7	24.7	2
학생수준	128	21.5	16.7	3
대학원 운영 실태	126	18.6	14.5	4
졸업생 창업자 수	126	8.1	6.3	5
합계	126	128.5	100.0	

〈표 23〉 교육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대학원과 원생간의 의사소통 정도	128	1.00	5.00	3.1797	1.0151	7.335	0.000**
창업대학원 현재 이미지 만족도	128	1.00	5.00	3.0313	1.0267	11.199	0.000**
재학생들의 수준 만족도	128	1.00	5.00	3.4844	0.8602	3.295	0.008**
대학원생들 간의 교류 정도	128	1.00	5.00	3.6094	0.8346	5.289	0.000**
특강 및 포럼을 위한 강의실 및 기자재 사용 편리성	128	1.00	5.00	3.2109	0.9854	6.536	0.000**
강의실 환경 만족도	128	1.00	5.00	3.2188	0.9302	9.147	0.000**
강의실 및 기자재 확보 정도	128	1.00	5.00	3.1641	0.9703	7.256	0.000**
강사진의 창업교육 능력 정도	128	1.00	5.00	3.3672	0.9871	7.166	0.000**

주) 통계적 신뢰수준 *는 P<0.05 이내, **는 P<0.01 이내 임.

3.4 설문 결과의 시사점

3.4.1 교육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도

창업대학원 학생들은 창업대학원의 설립 이념 목표에 대한 이해도에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대학원 설립 취지나 교육 목표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창업대학원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으나 창업대학원 입학 전에 가졌던 기대에 비해 입학 후 실망도가 높아지고 있다.

창업대학원 진학 목적은 입학전 1순위는 창업 정보 및 인프라 활용이고 2위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었다. 그러나 입학 후에는 1순위 인적 네트워크 구축, 2순위 창업 정보 및 인프라 활용으로 달라지고 있다.

3.4.2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창업대학원 학생들은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프로

그램(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론교육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코칭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약간 높으나 코칭교육의 구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턴십, 국내연수, 현장실습 교육 역시 인지도는 높으나 프로그램 내용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연수 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는 아주 높으며, 반면에 해외연수 프로그램내용은 만족도가 낮고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3.4.3 대학원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외부기관의 창업대학원 지원에 대한 생각은 중소기업청 지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 관련 유관기관 지원 만족도는 아주 낮다. 창업대학원의 국제교류 실적이나 박사과정 교류실적은 극히 미미하나 졸업생간 인적 네트워크는 활성화되고 있다. 장학제도에 대한 기대는 크나 실제적인 이해도와 활용도는 낮다.

3.4.4 창업대학원의 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

창업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영자 마인드이며, 그 다음이 아이템과 자금 등의 순서이다. 창업대학원 성공의 관건은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이 교수진과 학생수준 그리고 대학원 운영실태 등의 순서이다. 창업대학원생은 대학원생 간의 교류 정도에 가장 만족하고 있으며, 창업대학원의 현재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낮다. 창업대학원 졸업 후 진로선택에 대해서 창업 추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현재 사업(직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IV. 창업대학원 교육의 개선방향

창업대학원 사업 성공의 관건은 정확한 사업목표와 전략의 설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수한 창업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설정에 주력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간에 현장시장에 나아가 사업을 성공시키는 성공창업자 양성에 주력할 것인가는 그 설정된 방향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이 크게 달라 질것이기 때문이다. 창업대학원이 창업교육을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해야할 핵심사항을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4.1 자원 다원화를 통한 대학원 운영 내실화

대학원 내실화의 핵심은 안정된 재원과 교육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고지원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확보해왔던 창업대학원이 갑자기 국고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줄이게 되면 기존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어렵게 될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교육분야 특성화를 통한 새로운 수익성 기회 창출이나 표준운영매뉴얼 활용을 통한 교육비용 절감을 통해 어느 정도는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2 비학위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창업대학원이 설립되기 전까지 창업교육의 콘텐츠는 비학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준비되었고 콘텐츠의 내용 역시 대부분 실무가이드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권위 있는 창업교재의 개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기에 결과적으로는 교육 수준향상에도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창업교육의 진수는 실습과 현장교육을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화하고 공통적인 교육 수요는 표준형으로 개별적인 교육수요는 맞춤형으로 교육하는데 있다. 특히 일반적인 대학원 학위과정과는 달리 전문가과정 등과 같은 비학위과정의 중점적으로 육성하거나 최소한 공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4.3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교육품질관리 체계도입

창업교육의 획기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단순 현장형(Off Line)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장형 교육의 교육원가가 교육공급자 및 수요자 공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육시스템인 사이버(Cyber/On Line)교육일 것이다. 현장형(Off Line) 교육, 사이버(Cyber/On Line)교육 형식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품질관리 체계이다. 교육생이 이해하고 눈높이 교육이 가능하면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내용의 성과/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4.4 원생 선발기준 점검 및 장학제도의 효율성 제고

창업대학원생 선발방법은 일반 대학원생 선발과는 사뭇 달라야 한다. 단순 필기시험이나 지적능력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 창업성공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되는 '기업가정신' 수준을 확인할 수가 없다. 비학위과정(전문가과정, 일반 공개과정)은 물론이고 학위과정(석사, 박사) 원생의 경우에도 창업적성이나 기술능력, 정보관리, 의사결정 능력 등과 같은 현실분석과 적응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원생 선발방법을 전통적인 필기시험(전공, 어학 등) 등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기술 수준, 자기표현력, 설득력, 리더십을 평가하는 면접 또는 사업계획서 발표 등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확보된 장학금을 1/n로 분배 지급하는 방법은 교육 성취도가 높은 원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해 외형적으로는 무난한 것처럼 보이나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학금을 지나치게 국고에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창업대학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졸업생을 통한 장학기금 확충, 관련기업과의 연계 장학금 지급 등과 같은 다양한 장학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5 창업실무형 교수요원 확보

창업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그것도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업전문 교수요원을 찾기는 교육인력과 실무산업인력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

학에서는 기업인 출신으로 박사학위를 보유한 분들을 겸임이나 객원교수로 모시고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대학원은 이러한 창업실무형 이론가를 배출하여 향후 창업교육의 동량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4.6 창업 교육/정보 네트워크 구축

창업대학원은 전문성에 걸 맞는 창업정보를 창업대학원간은 물론이고 관련 대학과 사회 교육기관에 생산/보급해야 하며 특히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졸업생에 대한 평생 창업업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창업학”은 어떤 다른 학문보다 훨씬 더 많이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물론 창업의 양적 규모의 확대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사업화 기술의 창출, 구체적인 사업화 과정, 사업확산의 사회적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창업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성공의 지속가능성(Sustain Ability) 확보라 할 것이다. 백년을 지속할 수 있는 단 1개의 기업 창업이 1년을 버티지 못하는 100개 기업의 창업보다 사회국가적으로 훨씬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창업일 것이다.

비록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창업대학원의 설립”으로 창업의 모든 사회적 가치를 과거 보다는 전문적으로 평가하면서 창업성공과 창업실패를 만들어 내는 핵심적 변인들을 본격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있어 이미 작지 않은 성과이다. 더욱이 최소한 실패한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다시 반복적으로 답습

하지 않음으로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창업대학원은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창업대학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사업 추진대학에 대한 보다 정밀한 평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정한 “창업사관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업교육을 맡아 추진해온 대학당국 역시 주어진 국고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사업구상과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타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실사구시형 창업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한 수익성 있는 창업대학원 특성화모델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창업대학원생의 “창업자”다운 진취적 가치관과 “창업성공 의지”가 창업대학원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닌다는 소극적인 자부심보다 창업을 성공시키는 사업가, 창업성공을 보증하는 컨설팅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남다른 창의력으로 해결해나가는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사고로 학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자료> 중앙대학교 창업학 석사과정 이수 기준표(사례)

<p>* 총 교육시간 720시간</p> <p>* 매학기 10학점 이상 취득해야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공과목(의무학점): 6학점/3과목 2. 기초과목(선택학점): 2학점/1과목 3. 개별지도(의무학점): 1학점 4. 국내 및 해외연수(의무학점): 1학점 5. 인턴십(의무학점): 1학점 <p>* 의무학점은 단 1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지원된 국비장학금 환수</p> <p>* 의무과목 2과목 이상 낙제하면 자동제적</p> <p>* 개별지도, 해외연수는 Pass or Fail로 평가</p>

1. 전공과목(의무학점): 6학점/3과목

- 이론 및 사례연구, 세미나 모두 토요일 오전 중 강의개설 및 수업진행.
- 이론과목은 현장 실무형 사례연구가 가능하도록 블록 강의식으로 진행
- 세미나과목은 전문가 특강, 성공/실패 사례연구, 원생사업보고서 평가 등으로 구성 진행

2. 기초과목(선택학점): 2학점/1과목

- 사업 분야 또는 전공기초 관련과목은 중앙대학교가 개설하는 모든 교육과정(학사, 석사, 박사과정 과목, 전공분야 불문, 1.2캠퍼스불문)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3. 개별지도(의무학점): 1학점

- 개별지도는 지도교수와 협의해서 주제 및 일정을 정하게 되나 공동 토론회 등을 위해 가

급적 수요일 오전으로 배정 운용.

- 개별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창업경영전공생 1명과 창업컨설팅전공생 1명을 묶어서 지도하며 지도내용은 사업계획서 공동작성은 물론이고 사업성공에 필요한 현장방문, 자료수집 활동 등도 포함
- 개별지도에 의한 진도는 전공별 세미나 시간에 최소한 한 학기에 1회 이상 발표되어야 하며 그 진척사항이 공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신입생의 개별 지도교수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 대학원장이 결정.
- 2차 학기이상 원생의 지도교수는 원생 본인의 희망사항을 학과장과 협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4. 국내 및 해외연수(의무학점): 1학점

- 석사과정원생은 재학 중 국내 및 해외연수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국내 및 해외연수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야 함.
- 국내 및 해외연수 진행 중 대학원생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행동을 하거나 대학원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한 원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함.

5. 인턴십(의무학점): 1학점

- 석사과정원생은 ①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유관기업, ④ 경쟁기업 인턴십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인턴십기관장이 인턴십활동이 불량하다고 평가하거나 최종 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야 함.
- 인턴십 진행 중 대학원생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행동을 하거나 대학원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한 원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함.

참고문헌

- 김홍경(2006), 알고가면 두 배로 쉬워지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 67가지, 중소기업진흥공단.
- 심재후(2007), 친절한 창업교과서, 한스앤리.
-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2007. 3-8), <http://yueg.yewon.ac.kr>.
- 전국국책창업대학원 원우연합회(2007), 전국 창업대학원 논문집.
- 전국국책창업대학원 원우연합회(2007), 전국 창업대학원 창업성공사례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청(2004-2007), 주요 업무계획: 작지만 강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2004), 창업대학원사업 신청안내.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2004), 창업대학원 개설계획.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2004), 중소 · 벤처기업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
- 중소기업청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06), 벤처캐피탈 투자 우수사례.
- 중앙대학교 산업 · 창업경영대학원 홈페이지(2007. 3-8), <http://iem.cau.ac.kr>.
- 중앙대학교 산업 · 창업경영대학원(2004-2007), 창업경영대학원 안내.
-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홈페이지(2007. 3-8), <http://www.chinju.ac.kr>.
-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홈페이지(2007. 3-8), <http://start.hanbat.ac.kr>.
-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홈페이지(2007. 3-8), <http://leader.hoseo.ac.kr>.
- Allen, K. R.(2003), *Launching New Ventures: An Entrepreneurial Approach*, Houghton Mifflin.
- Anderson, P. H., Beveridge, D. A., Scott, T., Hofmeister, D. L., & Scott, T. W. (1999), *Threshold Entrepreneur Company Disk 1 & 2*, Prentice Hall.
- Buskirk, L. (2003), *Entrepreneurial Marketing*, Thomson South-western.
- Dollinger, M. (2002),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Prentice Hall.
- Greenberg, P. (2004), *CRM at the Speed of Light*, McGraw-Hill Higher Education.
- Haire, J., Chung, M., & Hartel, C. (2002), *Creating a Business Today*, John Wiley & Sons Australia, Ltd.
- Norman, J. (2004), *What No One Ever Tells You about Marketing Your Own Business: Real-Life Advice from 101 Successful Entrepreneurs*, Dearborn Trade Publishing.
- Ross, E., & Holland, A. (2004), *100 Great Businesses and the Minds Behind Them*, Random House Australia.
- Tucci, C. (2002), *Internet Business Model Text*, McGraw-Hill Higher Education.
- Westwood, J. (2006), *How to Write a Marketing Plan*, Kogan Dage.
- Whitmore, J. (2003), *Coaching for Performance: Growing People Performance and Purpose*, Nicholas Breadley Publishing.

A Study on the Educational Program Improvement of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Heon Bae Jeong*

Abstract

The business success is fundamental base of nation wealth. But the difficulty is not to start an enterprise, but to carry it to final succes. That is the why a government make constant efforts to raise up the success rate of business cre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GEM) could be one of major support systems for guaranteeing business success & flexible market adoption of not matured enterprise. This thesis aimed to evaluate the current GEM educational program by surveying the GEM students' opinion for the GEM's Educational Program Improvemen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und by this study is to be the Sustainable GEM. and We verified social & educational value of GEM for business success & educational model of business creation. For more successful results, the government & University should prepare more efficient evaluation system and specific program in business field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business founder to have "good will" for business success as ambitious entrepreneur.

Key Words: Creation of enterprise, Entrepreneuri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GEM),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

* Professor of Marketing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